



제5회 서울은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변화된 문화지형도와 공공성
_공공예술과 대중문화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PROGRAM BOOK

Session 2

확장된 공공성과 대중문화의 가능성

Expanded Publicness and Creative Consumer Culture

Speaker

임 산

Lim Shan

•
한국 |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Korea | Professor, Department of Curatorial
Studies. Dongduk University



-
- 前 아트센터나비 큐레이터
 - 前 (주)월간미술 기자
 - the former curator of art center Nabi
 - the former Journalist, Monthly Art Magazine

동시대 공공미술의 문화정치적 실현가능성

Cultural and Political Feasibility of Contemporary Public Art

●
임 산

Lim Shan

본 발표는 한국의 공공미술이 심미적 도시 구현의 조형물로서의 제한된 존재론을 극복하고, 시민공동체의 미적 사유와 문화정치적 의식의 표현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가 주목하는 공공미술과 대중문화와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시대 공공미술이 특정한 공적 위치화의 상태에 기반한 전통적인 관조적 대상화로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그 제안의 한 배경을 이룬다. 우리가 ‘공공미술(public art)’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개별 예술가와 예술작품은 물론이고 정부의 문화행정과 정책, 제도적 권력, 지리적 장소성, 공동체 의식, 재정적 규모, 심미적 스타일 등의 범주들을 포괄하는 무척 복합적인 영역이다. 애초에 공공미술에서 ‘공공적인(public)’이라는 개념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공유되고 기획된 사회적 서비스와 정책으로부터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대중(public)을 지향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그에 따라 대중의 사회 참여 경로도 무한 확대되는 상황은, 대중문화와 그 산업적 체계가 공공미술의 전통적인 지향적 주체에 끼

칠 영향력에 대한 숙고를 요구한다. 대중문화는 문화적 산물과 그 의미화작용 주변에서 특유의 역동적인 친밀감을 구사하며 대중의 정체성, 상상력, 주체성 등을 별다른 저항 없이 변모시키고 있다. 수동적인 이미지 소비자로서의 대중 혹은 어떤 합의적 실체로서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 그리고 의도된 이데올로기의 단일 대오로서의 표상을 자랑스러운 공공미술은 이제 대중문화의 일상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지만 더욱 다층적이고 분화되는 대중의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중문화가 수반하는 취미의 체계적 표준화, 사적 수사의 세속화, 디지털미디어의 인간화 등의 전략은 공공미술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길에서 저항하고 동시에 접속해야 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유로서의 새로운 풍경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미술은 대중문화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찰의 궤선을 면밀하게 그려야 할 것이다.

공공미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공적 영역에서의 여러 체험의 단면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은 공공적인 예술작품으로 불리는 것의 현시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술의 ‘공공다움(publicness)’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다. 박물관이나 갤러리 같은 미술계 제도권 공간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하버마스의 용어인) “공적 영역”에서 그 과정과 결과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공미술은 공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공미술의 생산과 수용의 여러 과정은 공적 선과 관련하는 이슈들을 논하는 대중이 구축하는 담론적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주제들이 대화에 열려있다. 개인의 이해관계와 미적 취향에 따른 의견 개진도 가능하고, 그 범위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문제들에 폭넓게 걸쳐 있다.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여러 종류의 매체를 통해 그러한 대화가 수행되고 소통되기도 한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작품 제작과 설치에 소요된 공적인 자금 규모는 적절하였는지, 작품을 창작한 예술가를 선정하는 절차는 공정하고 전문적이었는지, 자연

과 환경을 파괴한 것은 아닌지 등등의 질문들은 20세기 중반 이후 공공미술이 일으킨 여러 문제적 상황에서 오고갔다. 이러한 논의는 때로 공적 권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공미술 작품을 철거하거나 설치된 위치를 변경하기도 했고, 작품 자체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현대 공공미술의 실천이 지닌 복합성 자체를 상징하면서도, 공공미술의 공공다움을 그것의 수용의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듯 공공미술의 공공다움은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불화의 논리를 내재하고 있다. 즉 공공미술의 형식은 형식의 이유와의 싸움을 필연적으로 수행하며 스스로의 신뢰를 쌓아왔다.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공공적 수행의 상태는 공공미술이 스스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공동체 내에서 미적 가치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변통의 지혜를 강구하게 한다. 전통적으로 공공미술 작품은 시민들의 관조의 대상이 되어 지각적이고 인지적인 개입이라는 미적 체험을 일으켜 왔다. 그 기능은 어찌 보면 공공미술의 공공다움으로서의 실제적 목적에 적합한 선택일지 모른다. 하지만 조각, 미디어아트, 혹은 디자인으로 포섭되는 그것의 시각적 형식과 그것의 특정한 장소성은 동시대 대중문화의 이미지가 추동하는 자본의 길에서 자신의 공공다움의 언어를 침묵한 채 친근함과 동일시의 미적 경험을 소환하는 재귀적 오브제에 대한 내성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무용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공공미술이 지닌 불화의 측면이 일으키는 공동체의 비평적 개입의 열의를 한국 공공미술의 새로운 미래형식 모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따라서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적인’이라는 용어의 분절을 시도하는 예술적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묻는 해묵은 행동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 테제는 “건축 속의 미술”에서 “뉴장르 공공미술”에 이르는 공공미술 역사에서 줄곧 붙잡았던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대

중문화와 새로운 현실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공공미술이 그간의 형식을 갱신하고 그 정체성의 문제를 재구성하는 변화를 제기하는 건 어찌하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공공다움에 대한 물음은 물론이고 공적 영역의 전형적 판단까지 포괄하는 기획이어야 하는 그 작업은, 앞에서 언급한 공공미술의 복합적 성격을 이루는 데 연루되는 여러 요소들이 변화된 문화적 지형도 속에서 예술생산과 사회의 관계성을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는 일이다. 즉, 대중문화가 재편하는 현실의 구성적 양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사회의 변형을 이끄는 문화적 노동의 가치를 대중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중문화가 지배하는 생활양식의 제도와 심리의 차원을 정치적 의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예술적 주체성을 표현하는 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 발표에서 살펴볼 전범을 꼽자면, ‘프리이(Free)’ 그룹과 ‘사회변화를 위한 예술(Art for Social Change)’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겠다. 프리이의 경우, 슬로건과 대형광고판, 출판물 등의 형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모든 형식의 예술적 행동의 확장을 제안하는 예술 콜렉티브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행동주의 예술가로 칭하지 않지만 정치화의 형식을 실험하는 예술가로 규정한다. 그들에게 예술은 해방적 실천으로서의 예술이 비즈니스가 되는 것을 막고 공동체 공간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활용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지는 예술을 사회적 가치, 문화적 비평, 주체의 자유 등의 공통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예술의 특성을 방해하는 경제주의자, 그리고 생산의 자본주의적 형태로 예술적 생산을 전환하는 예술의 상업화 전략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저항한다. 주요 프로젝트 <공공미술을 이야기하는 방법(How to Talk to Public Art)>은 수행적인 연설 행위를 통해 정치적 사상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수단을 개발한다. 또한 참여적 워크숍을 통해 공공미술이 말하는 ‘공공성’의 맥락 속에서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는 방법을 대중과 함께 모색한다. ‘사회변화를 위한 예술’ 프로그램은 시각예술가와

공연예술가, 심리학자, 의료전문가, 기획자,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제적 협업 프로젝트로서, 공동체 구성원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고립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삶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가리아에서 운영되었다.

This presentation proposes that public art in Korea should overcome its existential limit as a sculpture for actualizing an aesthetic city, and establish its identity as the civic community's expression of aesthetic rationale as well as cultur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which is the focus of this conference, contemporary public art can no longer stay as a traditional objectification (just to look at) based on a particular state of public positioning. Awareness of that problem is the backdrop of this proposal. The phenomenon we call "public art" is a very complex realm that encompasses a wide range such as the government's cultural administration and policies, institutional power, geographical placing, community consciousness, financial scale, and aesthetic style, as well as individual artists and works of art. To begin with, the concept of "public" in public art has been directed toward public who receive tangible and intangible benefits from social services and policies that are planned and shared in pursuit of the common good. Today, however, online communication media is rapidly evolving therefore infinitely expanding paths for public's social participation. In these circumstances, we need to consider how popular culture and its industrial system impact the traditionally oriented subject of public art. Popular culture uses its unique dynamic intimacy surrounding cultural products and their semantic functions, transforming the identity, imagination, and autonomy of the public, without much resistance. Public art, which targets the masses as passive image consumers or any consensual entity, and public art, boastful of its representation as a single alternative to the intended ideology, now need to pay attention to changes in public consciousness and lifestyles that are more multi-layered and divergent, but not free from the daily influence of popular culture. In other words, strategies such as systematic standardization of hobbies, the secularization of private rhetoric, and the humanization of digital media, which popular culture accompanies, should resist and simultaneously connect on the path of new deliberation for public art. In order to create a new landscape as a critical deliberation, public art will have to draw a close line of self-reflection in the process of re-recognition of popular culture.

Public awareness of public art is one of the many aspects of experience in the public domain, but it bears the question of art's "publicness" in that it responds to the present state of what is called public art. Public art can be said to be public by showing the process and results in the "public domain (Habermas' term)," not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space in the art world, such as museums and galleries. Therefore, the various processes of the production and acceptance of public art can function as a discourse space established by the public who are discussing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good. That many topics are open to conversation. Opinions can be expressed according to individual interests and aesthetic tastes, and the scope ranges widely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Such conversations are also carried out and communicated through various kinds of media that lead popular culture. Questions such as whether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was well expressed, whether the size of the public funds required for the p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the works was appropriate, whether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artists who created the works was fair and professional, and whether they destroyed nature and the environment, were asked, and various problematic situations arising from public art since the mid-20th century were raised. These discussions sometimes influenced the decisions of public authority, forcing the removal of public art works or changing the location of installed works, as well as requiring modifications to the works themselves. This presents the complexity of the practice of contemporary public art, but it is also contrary evidenc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nature of public art from the context of its acceptance.

As such,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embodies the logic of rational and creative discord. In other words, the form of public art has built up its own trust by inevitably carrying out the fight against the reasons of form. Such a state of public performance, which is very basic, makes the public art seek the makeshift wisdom of how to build aesthetic values within the community where it must function itself. Traditionally, public artworks have been objects for citizens to contemplate, creating an aesthetic experience of perceptual and cognitive intervention. The function may be an appropriate choice for the practical purpose

of public art as a publicness. However, its visual form and its specific placeness, which are embraced by sculpture, media art, or design, cannot help but make us look back on whether it is only nurturing resistance to a recursive object that recalls the aesthetic experience of friendliness and identification, while keeping silent the language of one's public nature on the capital path, where the image of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is driving. Of course, it doesn't mean it's futile. I rather think that it is time to seriously explore the transformation of the community's enthusiasm for critical intervention, which is caused by the aspect of discord in public art, into a new future form of Korean public art.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have artistic planning that attempts to segment the term "public" from public art. This can be seen as an old-fashioned action, asking 'the social function of art,' but the theme has been held throughout the history of public art, ranging from "art in architecture" to "new genre public art." It must be a key question. Perhaps it is natural that public art, which needs to have a new real relationship with popular culture, brings about a change in renewing its form and reconstructing the identity issue. The project, which should cover not only the question of publicness but also the typical judgment of the public domain, is to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production and society from a cultural and political perspective, amid the changing cultural landscape of various elements combined to form the complex nature of public art mentioned above.

In other words, we can carefully observe the structural state of reality that popular culture reorganizes and share with the public the value of cultural labor that leads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thereby we can find a clue in expressing the artistic subjectness that can criticize, with political consciousness, the institution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of lifestyles dominated by popular culture. In this regard, good examples to be considered in this presentation include the 'Freee' group and the 'Art for Social Change' program. In the case of Freee, they are art collectivists who mainly use the form of slogans, large billboards, publications, etc. but propose the extension of all forms of artistic behavior. They don't call themselves activist artists, but they define themselves

as artists who experiment with the form of politicization. For them, art as a liberating practice aims to prevent art from becoming a business, and stop the use of community space for gentrification. In addition, such will continue to resist the economists who set art into a common sphere of social value, cultural criticism, freedom of subject, etc., and interfer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rt, and risks of the commercialization strategy of art that transforms artistic production into a capitalist form of production. The main project, How to Talk to Public Art, develops a means of sharing political ideas with citizens through performing speech acts. It also explores ways to expand the horizon of art, in the context of "publicness" that public art calls, through participatory workshops with public. The "Art for Social Change" program is an academic collaboration project involving visual artists, performing artists, psychologists, medical professionals, planners, and representatives of local communities and civic groups, which was operated in Bulgaria from 2000 to 2004, with the aim of enabling community members to overcome social and cultural isolation and prepare for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y life and civil society.